

배포일시	2024년 12월12일(목)
보도일시	즉시

<민주연구원 & 정책공간 포용과혁신, 공동주최 정책토론회 개최>

## 노벨경제학상 수상을 통해 본 포용적 정치경제와 한국의 과제

○ 민주연구원(원장 이한주)과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대표 박능후)은 12월 12일(목) 15시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을 통해 본 포용적 정치경제와 한국의 과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로 개최한다.

○ 다룬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제임스 로빈슨(James Robinson) 3인의 2024년 노벨경제학 수상자들은 지난 60년 간 한국의 놀라운 경제사회발전의 원인을 착취적 제도를 포용적 제도로 전환시킨 제도적 변화, 민주적 정치제도와 공정한 경제제도 간 상호작용, 분단과 전쟁이라는 역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어낸 시민사회의 역량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을 포용적 정치경제의 모범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금융자본주의와 불로소득자본주의, 신경제자본주의가 압도하면서 사회경제 분야에서 포용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포퓰리즘과 배타주의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포용적 경제제도, 세제, 복지정책이 급속히 훼손되고 있으며, 포용적 정치체제도 훼손되고 대화와 타협, 참여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 12월 3일에 발생한 계엄령 발동과 군인에 의한 민의의 전당 국회 침탈로 그 실태가 드러나고 말았다.

- 이번 토론회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김기봉 포용과혁신 연구위원장,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주병기 교수는 “아세모글루의 국부론과 대한민국의 21세기”라는 발표문에서 한국사회가 포용적 제도에도 불구하고 착취적 노동시장과 플랫폼 경제, 지역 불균형 및 교육과 의료 등 우리 현실적으로 국민 삶의 질에 큰 격차가 있음을 주장한다.

안성호 전 원장은 “자유와 번영의 정치경제: 포용민주정치 헌정 혁신”이란 발표문에서 아세모글루 등 노벨경제학 수상자들의 포용적 경제경제 제도에 기반한 포용국가지수(Inclusive State Index)를 통해 포용민주정이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게 되므로, 속론의 포용민주정으로 헌정혁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전제화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준내각제 + 간선 대통령’ 제도로 헌정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을 통한 위기 극복과 독재국가로 회귀 시도를 예단하고, 그 대안으로 준내각제와 양원제 국회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강경훈 교수는 “아세모글루의 모범국가 사례 한국은 왜 헬조선이 되었나?”라는 발표문에서 선진국으로 칭송받던 한국이 최근 다시 헬조선으로 평가절하된 원인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언론의 소유구조를 들고, 포용적 정치 및 경제제도의 확산과 선순환 유도를 주장한다.

- 이한주 원장과 박능후 대표는 이번 공개 토론회가 한국사회의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적 정치경제 기반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사회 발전을 지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급박한 계엄령 선언 이후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토론회 개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